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5, VOL. 28, No. 2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5.28.2.015

한의과대학에서의 의학사 교육에 대한 제언

김용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Proposal for Medical History Education in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Yong-Jin Kim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each college of Korean medicine in Korea adopts diverse textbooks for the medical history class, resulting in educational contents variations. This proposal aimed for the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Methods : The transition of medical history curriculum will be attempt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aradigm change in modern education. The first step is investigation on the course credit and curriculum grade of medical history class presented in education status reports of all Korean medicine schools. The next step is study on the various methods about changes of medical history education base on the learning objectives of colleges of Korean medicine.

Results : The researchers of medical history should make an agreement on modification of learning objectives of the curriculum, and then educational standardization must be achieved by publishing a medical history textbook in accordance with the modified learning objectives.

Conclusions : The researchers of medical history must collaborate to standardize medical history education by developing and applying internet-based flipped learning model.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Flipped learning, Standardization, Learning objectives

Ⅰ. 緖論

醫學史는 의학에 관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다.

의학사 교육은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진 의료와 관련된 인문학 교육 중 가장 역사가 오랜 것이다. 서양의 경우 대략 19세기 초반부터 유럽의 여러 의과대학에서 의학사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경우도 19세기 말부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학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사 관련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한의과대학 교육현황에 따르면 전국 12개 대학(원)에서 대부분 예과 2학년에 주당 2시간씩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본과 1학년에 운영되기도 하고, 또 3시간씩 운영되기도 한다[2].

2007년에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수업되는 교과목에 대한 학습목표를 선정한 바가 있는데 현재의 수업으로는 한의학교육평가원의 권장 시수에 약간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마다의 상황 및 담당교수의 특성 등에 의하여 전국한의과대학의 의학사 교육내용이 많이 다른 형편이다. 특히 의학사교재의 활용에 있어서는 전국 한의대 학생들이 의학사의 내용을 여러 종류의 다른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현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의학사

접수▸2015년 10월 08일 수정▸2015년 11월 23일 채택▸2015년 11월 22일
교신저자▸ 김용진, 대전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42-280-2626 E-mail : king@dju.kr

1) 여인석.「의과대학 의학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의사학. 2010;13(2):8.
2)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전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집 6집』. 서울. 2012:3-233.

교육의 표준화 및 특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현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1) 교육패러다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윤자형은 1990-2000년대 한국 고등교육개혁과 대학문화의 변동이라는 석사학위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3].

> "1990~2000년대의 대학문화 변동을 한국사회의 거시적인 패러다임 전환 및 그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1980년대 '정보화' '세계화' 아이디어 형성에 의한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및 1990-2000년대 고등교육개혁 정책을 통한 정보화·세계화 아이디어의 제도화, 그리고 고등교육개혁 실패에 의한 2000년대 말 이후 정보화·세계화 패러다임의 위기 국면을 하나의 과정으로 서술하면서, 대학문화를 이러한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보았다. …… 고등교육개혁은 2000년대 말에 이르면 매우 역설적인 두 가지 효과를 드러낸다. 첫 번째 효과는 기업적 사고방식의 대학 지배 현상으로, 이는 대학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업화'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고등교육개혁의 두 번째 효과는 대학 기업화의 '실패'라 할 만한 것으로, 이것은 1990~2000년대 고등교육개혁 정책이 정부·기업·대학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려했던 목표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대학운영에 있어서 등록금 의존도가 상승하고, 개인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개혁의 이러한 역설적 결과로 인해 대학생들은 이중적 고통을 겪게 된다. 대학이 '효율'과 '비용절감'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업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은 질적으로 더욱 악화된 교육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부담은 더 커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말부터는 '반값 등록금' 투쟁이나 대학거부 선언과 같은 고등교육개혁의 실패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의 고등교육개혁 정책 패러다임이 지속의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구상해야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한국에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어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에도 교육부에서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1. Card News(MOE).

이러한 과정 중에서 국내외에서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MOOC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강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Flipped Learning 방식의 강좌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 MOOC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대 규모의 공개 온라인 강좌"로 세계적으로는 Khan Academy나 Coursera, Udacity, edX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MOOC를 활용한 온라인 공개수업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

3) 윤자형.「1990-2000년대 한국 고등교육개혁과 대학문화의 변동」. 중앙대학교 2014년 석사학위논문. 국문초록. 2014;110-111.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5.28.2.015

을 활용하기도 하고 거기서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온라인 과제나 시험이 제공되는 형태로 활용된다.

이러한 MOOC의 주요 특징은 전 세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양질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제공, 평균 15분 내외의 module화된 동영상 제공,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진행되는 수강 신청 및 강좌 운영, 퀴즈와 시험을 통한 학사관리(LMS 활용), 자동화된 채점 시스템 및 동료평가 시스템 활용, 수강생들간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형성, 수료증 발급 및 취업과 연계 등이라고 하겠다.

그림 2. K-MOOK Homepage(http://www.kmooc.kr/).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9월부터 K-MOOC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3) Flipped Learning

Flipped Learning에 대하여 위키백과에서는 “혼합형 학습의 한 형태로 교실수업에서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수업방식을 의미한다. 역진행 수업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학생들이 교실수업 전에 교사가 제공하는 수업 영상을 미리 시청한다. 그 후 수업시간에 교사는 교과 내용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심화된 학습활동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4]라고 하였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정반대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한 강연 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 풀이를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이스트(KAIST), 울산과기대(UNIST), 서울대가 이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플립러닝을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일부 대학의 경우 강연은 하버드대학이나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수업으로 대체하고 담당 교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해 교육계에 기회이자 위협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5]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Flipped Learning은 현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2014학년도 2학기 창업 교양강좌를 자체적으로 MOOC플랫폼으로 운영되어, 외부인을 대상으로 이공계 대상 ‘보충수업’을 오픈한 ‘고공학교’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정규 강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고, 중앙대에서는 Open Education 플랫폼 도입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병서 교수는 “수업에 할 강의를 MOOC로 대체하고 수업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한다.”라고 하였고,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김형률 교수는 2015년 1학기 “현대세계사의 이해”라는 교양수업을 실시간 MOOC 수업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6].

[한국대학신문1000호기념특집기획시리즈<교육영토확장 블루오션을 열어라>](3)‘대학 3.0시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라’2015년 8월 10일 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 한국대학신문
> ‘열려있다. 함께한다. 참여한다.’ 고등교육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캠퍼스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강의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든다. IT와 결합한 교육의 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전용 플랫폼과 SNS로 수업부터 시험과 과제 제출까지 가능한 무크(MOOC·온라인공개강좌)가 대표적이다. 지식 전달을 위주로 하는 일방적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 교육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개방과 공유, 참여와 투명성’의 이른

4)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7%AD%EC%A7%84%ED%96%89_%EC%88%98%EC%97%85
5)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100&cid=43667&categoryId=43667
6)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937)

바 '대학3.0' 시대다.
대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기 혁신을 요구 받고 있다. 개인지성에 기대고 있던 무게 추는 집단지성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개인역량에 기대는 연구보다 공동의 연구와 집단 창의성, 네트워크형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식의 세계화와 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캠퍼스와 강의실의 장벽이 무너진 '대학 3.0'시대의 대학교육은 IT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이러닝이나 무크(MOOC, 온라인대중공개강좌), 플립드러닝의 도입 등 수업 현장에서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전자신문(http://www.etnews.com/20150216000177) 2015년 2월 16일자 "UNIST, 플립드 러닝 도입 6년… 교육혁신 모델로 자리 잡아"7)라는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UNIST는 자체 e-에듀케이션 교육혁신 모델과 전공 분야별 플립드 러닝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했다.
UNIST는 2009년 개교 초부터 창의 교육과 교육비용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e-에듀케이션 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9년 3과목으로 시작한 UNIST 플립드 러닝은 2013년 32과목, 지난해에는 66과목으로 확대됐다. 오는 2018년에는 전체 교과목의 50% 해당하는 170과목에 적용하는 게 목표다.
임진혁 UNIST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UNIST는 국내 처음으로 모바일 캠퍼스 환경을 구축해 플립드 러닝을 시도했고 이제 확산 단계에 이르렀다"며 "플립드 러닝 등 e-에듀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새롭고 신선한 창의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립드 러닝은 학습자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모델이다. 학습자는 온라인으로 미리 강의 내용을 학습하고 강의실에서 토론, 발표, 실습, 협동학습 등에 참여한다. 이러한 교육 모델은 파괴적 교육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무크(MOOC)'의 벤치마킹 사례로 꼽혔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MOOC와 Flipped Learning 등과 같은 교육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혁신은 더욱 효율적이고, 사회 변화에 의하여 진행된다. 한의학 의학사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교육의 혁신에 동참하여 의학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표준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2. 한의과대학 의학사 교육현황

1) 한의과대학 의학사 학습목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산하 연수교육 및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2006년에 1996년도 한의과대학 학습목표 개정판을 기반으로 한방과목 위주의 2006년 한의과대학 학습목표 개정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현 상황에 맞게 1996년판 내용의 수정 및 보완하고, 기초의학 2개 과목을 추가(해부학, 의사학)하고, 가급적 11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고 있고 최소한 배워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하고, 각 과목별 형식을 통일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긴 한의과대학 의사학 학습목표(2007)의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9).

한의과대학 의사학 학습목표

제 1편 총 론(강의 6시간)
學習目的
醫史學의 전반적인 개요와 醫史學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을 설명한다. 醫史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제1장 醫史學 개요(강의 3시간)
學習目的
醫史學이란 학문의 성격을 이해하고 醫史學 연구의 범위와 아울러 연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을 설명한다.
[學習目標]

7)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50216000177.
8) 안규석.『한의과대학 학습목표 기초의학편(2006년 개정판)』. 서울:유천문화사. 2007:8.
9) 안규석.『한의과대학 학습목표 기초의학편(2006년 개정판)』. 서울:유천문화사. 2007:311-352.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5.28.2.015

1. 醫史學의 학문적 성격을 이해한다.(A)
2. 醫史學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이해한다.(A)
3. 醫史學 연구의 여러 범주들을 살펴본다.(A)
4. 의학 연구에 있어 醫史學이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한다.(A)

의사학 학습목표 – 중국의학사
學習目的
중국의학이 발전해 온 과정을 시대별로 이해한다. 각 시대마다의 의학유파와 의가들의 이론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이를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연계하여 고찰한다.

제1장 原始時代(강의 3시간)
學習目的
원시시대의 생활모습을 통해 의학의 기원을 이해한다.
[學習目標]
1. 선사시대 중국의 생활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의학의 기원에 대해 살펴본다.(A)
2. 의학의 원시기원에 대한 학설들을 살펴본다.(A)
3. 침, 뜸과 약물의 원시기원에 대해 이해한다.(A)

의사학 학습목표 – 한국의학사
學習目的
한국의학이 발전해 온 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한다. 한국의학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정치,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 시대 의학의 면모를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제1장 原始時代(강의 3시간)
學習目的
原始時代의 생활모습에 나타나는 의학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
[學習目標]
1. 원시시대의 생활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학의 기원에 대해 이해한다.(A)
2. 원시시대의 질병관에 대해 이해한다.(A)
3. 원시시대의 의학의 뿌리가 된 원시신앙에 대해 이해한다.(A)
4. 의학의 기원에 대한 여러 학설들에 대해 이해한다.(A)

이상의 학습목표에서 (A)는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수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B)는 학부의 수업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수업을 하거나 대학원 수업에 활용될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한의과대학에서 2007년 개정된 학습목표에 의거하여 수업이 진행되기 보다는, 의사학 담당교수의 성향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교재나 수업의 내용이 많이 다른 상황이다.

이에 전국의 의사학 연구자들이 모여 학습목표를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목표에 따른 새로운 교재를 편찬할 필요가 있다.

2) 한의과대학 의학사 교육의 현황

한의학분야의 의학사 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연세의사학에 2편의 논문과 민족의학신문의 2012년 연중기획 정도에 불과하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김남일은 의학사 교육의 개선방안으로 교육의 내실화 방안으로 “수업시간의 증가와 한국 중국 일본 서양의학사 등의 내용을 수업하여야 하며, 신규과목으로 의료인문학, 의료사회학, 한의학문화콘텐츠론, 한의학박물관학, 전통의학사, 보완대체의학의 역사 등을 개설하여야 하며, 특강의 활성화와 학문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학사 교육이 활용되어야 한다.”[10]고 주장하였다.

강연석은 “한의과대학의 의학사교육은 소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간 사건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11]고 주장하였다.

서양의학의 의학사에 대하여 여인석은 의과대학 의학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서 의학사 교육 담당 인력의 확보 및 재교육이 필요하고, 교재의 편찬이 필요하고, 의료인문학적

10) 김남일.「한의과대학 의학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의사학. 2010;13(2):57-58.
11) 강연석.「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의학사교육」. 연세의사학. 2010;13(2):69.

인 관점으로 의학사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12].

『민족의학신문 2012년 9월 27일자 연중기획-한의학 2012년의 자화상(6) 한의대 교과서 사용실태 및 개정현황6-의사학』에서 2012년 현재 "경희대·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원광대는 『강좌 중국의학사』를, 대전대는 『한중의학사개설』을, 동국대는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을, 세명대는 『신편 중국의학사』를 교재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교재의 내용으로는 주로 중국의학의 기원과 원시의료, 상왕조에서 춘추시대까지의 의학, 진한에서부터 삼국시대까지 의학, 위진남북조시대의 의학, 당과 송대의 의학, 원과 명대의 의학, 청대의 의학, 근대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의 의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학 교과목에 의견으로 의사학전공자들의 의사학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재의 보완을 요구하였다."[13]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한의과대학의 의학사교육은 각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강사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교육목표에 맞게 수업내용을 진행하여 의학사 교육의 표준화를 통하여 한의학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대 사회는 IT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교육에 있어서도 MOOC나 Flipped Learning과 같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한의과대학의 의학사교육에 Flipped Learning의 방식을 도입하여, 동영상강의를 통한 의학사 교육의 표준화 및 개별 수업을 통한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육협의회 부설고등교육연수원에서는 해마다 대학교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교수법연수를 실시하여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월에 실시된 연수는 아래와 같다[14].

그림 3. 고등교육연수원 교수법 프로그램.

이러한 교수법 연수에도 많이 활용되는 교수법중의 하나가 Flipped Learning이다. 이 Flipped Learning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수강하고, 오프라인 수업시간에는 온라인 수업내용에 대한 토론 및 발표, 과제물 작성, 문제풀이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한의과대학의 의학사 수업에도 Flipped Learning의 방법을 활용하면 더욱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3) 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의학사 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제언

한의과대학의 의학사교육시간은 학기당 15~16주 수업에 2시간 2학점으로 구성되어 이를 기준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실제로 활용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의학사 수업의 Flipped Learning 방법은 2시간의 수업시간을 1시간은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나머지 1~2시간은 각 학교의 사정에 맞는 수업으로 주로 토론 및 발표, 출제된 과제물 수행, 문제풀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1) 1시간의 사이버강의

먼저 1시간 사이버 강의는 의학사 연구자들이 각각의 분량을 나누어 공동으로 제작하야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 강

12) 여인석. 「의과대학 의학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의사학. 2010;13(2):17-18.
13) 민족의학신문 2012년 9월 27일자,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4
14) 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 연수원 홈페이지 http://hrd.kcue.or.kr/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5.28.2.015

의의 내용은 주로 30분 전후의 동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10분 전후의 짧은 동영상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과 30분 전후의 동영상 1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짧은 동영상 여러 개를 만드는 방법을 추천한다.

여기에서 방대한 의학사 수업내용을 30분짜리 동영상 강좌로 어떻게 압축하여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수업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수가 모든 내용의 수업을 다 하여도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은 대략 30% 정도라고 하므로 우선 수업의 내용을 많이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를 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있으므로, 이 기회에 수업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업 내용을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7년 개정된 의학사 학습목표를 재설정하고, 학습목표에 맞는 강의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교재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의학사 사이버 강의 내용을 참고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학기 1시간 인터넷 강의 내용 제안
- 1주 오리엔테이션
- 2주 춘추시대이전의 의학
- 3주 춘추시대의 의학
- 4주 전국시대의 의학
- 5주 진한시대의 의학1
- 6주 진한시대의 의학2
- 7주 위진남북조시대의 의학
- 8주 중간고사
- 9주 수당시대의 의학1
- 10주 수당시대의 의학2
- 11주 송대의 의학1
- 12주 송대의 의학2
- 13주 금원시대의 의학1
- 14주 금원시대의 의학2
- 15주 보강주(종합토론)
- 16주 기말고사

2학기 1시간 인터넷 강의 내용 제안
- 1주 명대의 의학1
- 2주 명대의 의학2
- 3주 청대의 의학1
- 4주 청대의 의학2
- 5주 민국시대의 의학
- 6주 한국 고대의 의학
- 7주 조선초기의 의학
- 8주 중간고사
- 9주 조선중기의 의학1
- 10주 조선중기의 의학2
- 11주 조선후기의 의학1
- 12주 조선후기의 의학2
- 13주 개항기의 의학
- 14주 근대의 의학
- 15주 보강주(종합토론)
- 16주 기말고사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학사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강의내용을 도출하면 더욱 좋다고 생각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수업내용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자신이 맡은 수업부분에 대하여 사이버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이를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으로 수업을 실시한다.

공동으로 제작된 사이버 동영상 강의는 5년 정도의 주기로 새롭게 교체하여, 최신 의학사 연구 성과물도 반영되어야 한다.

(2) 1시간의 개별 강의

나머지 1시간의 수업은 학교의 상황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Flipped Learning에서는 학생들에게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지 말고, 인터넷 수업내용의 심화학습으로 토론 또는 문제 풀이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의학사에서 개별강의의 내용에 대하여는 학습목표에 따른 학교별 개별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의 부족분 수업 등을 실시하여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부여하여 과제물을 풀게 하는 방법으로 TBL 및 PBL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식의 수업을 하거나, 수업내용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발표를 시키거나, 전체적인 토론을 실시하는 방식도 좋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별 강의에 대하여서도 의학사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면 더욱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3) 의학사 Flipped Learning의 보완사항

Flipped Learning의 장점은 다양하지만 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Flipped Learning의 단점은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 분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교육 분량을 단순하게 줄이기보다는 의학사 연구자들의 협의로 교육 내용을 줄이면서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과연 인터넷 강의를 얼마나 잘 수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수업시간에도 수업태도가 그리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이 혼자 인터넷을 통하여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오프라인수업시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퀴즈를 보는 방법이 있으나 아직 커다란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Ⅲ. 結論

1. IT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때에 의학사교육에도 Flipped Learning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의학사 과목에 Flipped Learning을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의학사 교육의 표준화를 위하여 한국의사학회주관으로 의학사강의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습목표를 재설정하고, 전국 공통의 강의록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인터넷 동영상수업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강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인터넷 동영상 수업의 내용은 5년 주기로 교체하여 최신 의학사 연구 성과물도 추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터넷 동영상 이외의 수업은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되어야 한다.

이상은 반드시 의학사 연구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학사 교육의 효율을 높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강연석.「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의학사교육」. 연세의사학. 2010;13(2):69.
2. 김남일.「한의과대학 의학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의사학. 2010;13(2):57-58.
3. 안규석,『한의과대학 학습목표 기초의학편(2006년 개정판)』. 서울:유천문화사. 2007:8.
4. 여인석.「의과대학 의학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의사학. 2010;13(2):17-18.
5. 윤자형.「1990-2000년대 한국 고등교육개혁과 대학문화의 변동」중앙대학교 2014년 석사학위논문. 국문초록. 2014;110-111.
6.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전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집 6집』. 서울. 2012:3-233.
7.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100&cid=43667&categoryId=43667
8. 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 연수원 홈페이지(http://hrd.kcue.or.kr/)
9. 민족의학신문, 2012년 9월 27일자(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4)
10.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97%AD%EC%A7%84%ED%96%89_%EC%88%98%EC%97%85) 전자신문(http://www.etnews.com/20150216000177)
11.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937)